

## 직장인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조 성 이<sup>1)</sup>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김 태 선<sup>2)</sup>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직장인 남녀 15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은 개별적으로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존감은 대인관계 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애로 대인관계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경로를 고려한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변인 간의 순차적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

---

\* 본 연구는 조성이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0) ‘직장인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요약한 것임.

1) 한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E-mail: taesunkim@ajo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현대사회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 기업의 근로자들은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 또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가중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나 연봉 수준, 직무 불만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인관계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 COVID-19의 상황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의 동료, 상사, 부하직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직장인의 직무만족 및 이직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요인은 대인관계적 요인이다(이연주, 김유나, 박형인, 2021). 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의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81%가 일보다는 ‘사람’이 퇴사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신승엽, 2019. 3. 20), 직장인 스트레스 원인 1위로 인간관계를 꼽았다(신보훈, 2020. 7. 2). 직장인 대부분은 대인관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은 직무동기 및 직무몰입을 저해하며 직무만족과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용, 2018; Kreitner & Kinicki, 2001). 이에 따라 직장인의 대인관계 문제는 개인의 적응의 차원을 넘어 조직 차원에서 집단의 응집력과 성공적인 조직 운영의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Cooper & Marshall, 1978). 이러한 문제들에 주목하여, 직장에서도 대인관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심리 부적응을 돕고자 자체적으로 직장 내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EAP(Employees Assistance Program: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대인관계의 문제가 중요한 만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 애착(송가미, 박희현, 2016), 양육 태도(권보연, 2000), 자의식(문혜정, 2004), 성격구조(Gurtman, 1995) 등의 개인과 환경의 다양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들 가운데 현대의 개인주의 사회를 반영한 자기중심성, 특권의식, 극단적 과대평가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애와 관련한 연구들(김미선, 주은지, 2020; 조성휘, 가요한, 2020; 조영재, 이동훈, 2013)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자기애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적응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지나친 자기중심성으로 타인에게 거부감이나 피해를 주는 부정적 자기애가 강할 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청소년(최지영, 이영순, 2014)이나 대학생(김미선, 주은지, 2020; 노우빈, 홍혜영, 2015; 조성휘, 가요한, 2020)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기애를 가진 직장인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자기애는 자신을 애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도취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는 과도하게 자기중심적 행동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거부나 소외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

다(정남운, 2001;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애는 드러나는 표현 양상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외현적 자기애는 이상화와 웅대성을 중심으로 발현되며, 내현적 자기애는 열등감과 취약성을 중심으로 발현된다(Wink, 1991).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해 민감하여 상처받기 쉽고, 대인관계에서 이런 취약성으로 부적응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윤성민, 신회천, 2007). 이들도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거대자기 환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대개 무의식으로 숨겨져 있어 과시적이고 웅대한 자기 환상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불안하고 과민하여 우울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내면의 숨겨진 웅대한 환상과는 반대로 겉으로는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강선희, 정남운, 2002). 다수의 선행 연구들(Dickinson & Pincus, 2003; Robbins & Dupont, 1992; Schurman, 2000; Wink, 1991)에서는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에 많은 부적응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왔다. Robbins와 Dupont의 연구(1992)에서 이상화 욕구가 높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대인관계에서 순종적이지만 다소 적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과민해지고 불안정하며, 나아가 강한 복수심을 느끼

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Wink, 1991). 국내 연구들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여러 측면의 대인관계 문제를 보고하였는데, 특히 수줍음을 반영하는 사회적 억제와 낮은 자존감과 자기주장의 부족을 반영하는 비주장성의 문제를 보고하였다(안봉화, 2011). 이상과 같이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적응적 성격을 나타내고 대인관계에서 높은 불안을 경험(서나리, 2011)하기 쉽고, 이에 따라 관계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 등의 대인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이인숙, 2002).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거대한 자기 환상때문에 높은 내적 기준을 갖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자기 불일치가 높은 경우가 많다(권은미 등, 2009). 따라서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개념은 비합리적 신념을 토대로 한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개념일 수 있다(김정균, 장석진, 2014). 자기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 관념 및 태도의 독특한 구성(Felker & Felker, 1987)으로 정의하는데, 자기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자기개념을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로 개념화하여(Woolfolk, Novalany, Gara, Allen & Polino, 1995), 내용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Campbell et al., 1996). 그러나 그동안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간의 영향을 설명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함경애, 이은혜, 박명숙, 천성문, 2013), 자기개념 명확성(장주혜, 2019)과 같이 자기개념의 내용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 각각의 단면적인 부분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개념의 내용적 차원의 주요 변인인 자존감(self-esteem)과 구조적 차원의 주요 변인인 자기개념 명료성/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체계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개념의 내용적 차원을 반영하는 자존감에 대해 살펴보면, DSM-5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의식적으로는 자신이 매우 우수하고 대단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면 안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열등의식이 내재되어 있다(설미향, 이운형, 2011). 이런 면에서 이들의 자존감은 방어적인 특성을 많이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권석만, 한수정, 2016; 서수균, 권석만, 2002). 또한,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반응과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을 발달시키기가 어렵다(Akhtar & Thomson, 1982). 권석만과 한수정(2016)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과 거절과 같이 자존감에 위협이 될 상황을 아예 회피해버려 긍정적인 자존감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 사건을 더욱 확대하여

위협적으로 느끼고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은혜(2012)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으며,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낮은 자존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성공시킬 것이라는 믿음, 즉 자존감이나 자아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대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서나리의 연구(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자기개념의 구조적 차원을 반영하는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신을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에 대한 개념이 내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Campbell, 1990). 자기개념 명료성은 주로 정서 상태, 정신건강, 주관적 안녕감 및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어 왔다(송보라, 이기학, 2009). 자기개념 명료성의 연구를 개관한 박우람과 홍상황(2021)에 따르면 자기애는 자존감과 더불어 자기개념 명료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며, 자기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는 대인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윤아름과 장현아(2017)는 대학생의 자기개념 명료

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혔고, 장주혜(2019)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의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 문제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의 연구(2007)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은 낮으며 특히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의 속성으로 구체적이지 못함(Akhtar & Thompson, 1982), 자기 확신의 부족(Wink, 1991), 목표 불안정성(강선희, 정남운, 2002)이 언급되었던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은 자신에 대한 명료성이 부족하며, 자기에 대한 신념이나 개념들이 서로 상충하고, 종종 자기관이 시간이나 맥락에 따라 심하게 변동함을 경험하며, 사회적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위협으로 지각하여 대인관계에서 쉽게 분노나 공격 등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이상과 같이 자기개념의 두 차원인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와 대인관계 문제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기개념을 자존감 또는 자기개념 명료성의 한 차원적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자존감의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한수정, 권석만, 2010; 박은희, 2014; 서나리, 2011; 이은혜,

2012) 자기개념 명료성의 역할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부족했다. 둘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는 개인과 조직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 선행연구(김아름, 2009; 박선민, 2018; Danu, Joanne & Juliana, 2008)를 통해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관련있다는 점은 밝혀졌다. 자기 자신을 유능하지 않고 가치가 낮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모호하고 불분명한 자기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Danu, et al., 2008). 이는 자존감이 자기개념 명료성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김아름의 연구(2009)에서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아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져서 결국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이란 성공적 수행을 방해하는 구실을 만드는 심리기제를 지칭하는데, 자기 가치감을 보호하려는 동기의 의미를 가진다(Berglas & Jones, 1978). 또한, 박선민의 연구(2018)에서도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함을 확인하여 자존감이 자기개념 명료성보다 선행한다는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직장인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순차적으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자기개념의 내용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의 주요 변인인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매개 변인으로써의 자기개념을 내용적 차원 또는 구조적 차원만을 다뤘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내현적 자기애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효과적인 상담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은 각각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 지역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그 외의 여러 형태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3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약 일주일간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 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이 진행되도록 설정하였다. 이 중 남녀의 수는 각각 150명(50.0%)이며, 평균 연령은 40세이다. 근무 경력은 3년 미만 28명(9.3%), 3년 이상~6년 미만 53명(17.7%), 6년 이상~10년 미만 54명(18.0%), 10년 이상 165명(55.0%)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직장인이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기업 규모는 대기업 40명(13.3%), 중소기업 118명(39.3%), 그 외 개인회사 51명(17.0%), 외국계 기업 6명(2.0%), 공공기관/공기업/학교 50명(16.7%), 기타 35명(11.7%)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표 1 참조).

### 2. 측정도구

#### 내현적 자기애 척도

Akhtar와 Thomson(1982)이 개발하고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부족(8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으로 응답한다. 척도의 총점은 45문항의 평균으로 구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의 연구(2002)에서는 전체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alpha$  역시 .93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00)

| 항목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성별   | 남자              | 150 | 50.0   |
|      | 여자              | 150 | 50.0   |
| 나이   | 20~29세          | 42  | 14.0   |
|      | 30~39세          | 118 | 38.3   |
|      | 40~49세          | 94  | 31.3   |
|      | 50~59세          | 42  | 14.0   |
|      | 60~69세          | 4   | 1.3    |
| 거주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68 | 56.0   |
|      | 수도권 외           | 132 | 44.0   |
| 근무경력 | 3년 미만           | 28  | 9.3    |
|      | 3년 이상~ 6년 미만    | 53  | 17.7   |
|      | 6년 이상~10년 미만    | 54  | 18.0   |
|      | 10년 이상          | 165 | 55.0   |
| 직종   | 일반관리/사무직        | 146 | 48.7   |
|      | 영업직             | 15  | 5.0    |
|      | 서비스직            | 59  | 19.7   |
|      | 연구개발직           | 14  | 4.7    |
|      | 생산/기술직          | 32  | 10.7   |
|      | 기타              | 34  | 11.3   |
| 고용형태 | 정규직             | 246 | 82.0   |
|      | 비정규직            | 54  | 18.0   |
| 기업규모 | 대기업             | 40  | 13.3   |
|      | 중소기업            | 118 | 39.3   |
|      | 그 외 개인회사        | 51  | 17.0   |
|      | 외국계 기업          | 6   | 2.0    |
|      | 공공기관/공기업/학교     | 50  | 16.7   |
|      | 기타              | 35  | 11.7   |

### 대인관계문제 척도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 (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 (1990)가 재구성한 대인관계 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IIP)를 홍상환 등(2002)이 표준화한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omplex scale; KIIP-SC)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비주장성(5문항), 과순응성(5문항), 자기희생(5문항), 과관여(5문항), 통제지배(5문항), 자기중심성(5문항), 냉담(5문항), 사회적 억제(5문항)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으로 응답한다.

척도의 총점은 40문항의 평균으로 구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의 연구(2002)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식으로 응답한다. 척도의 총점은 10문항의 평균으로 구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훈진, 원호택의 연구(1995)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89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

Campbell, Chew와 Scratchley(1991)이 개발하고 Campbell 등(1996)이 단축형으로 만들었으며 김대익(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요소일관성 (7문항), 자기확신성(5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으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신하는 정도가 높고,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가지는 등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ampbell 등의 연구(1996)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으며, 김대익의 연구(1998)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alpha$ 와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모델6을 적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매개변인이 2개 이상 투입된 복잡한 순차적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으며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 모형에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 대인관계 문제의 상관관계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20

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N = 300)

| 구분          | 1      | 2      | 3      | 4    |
|-------------|--------|--------|--------|------|
| 1. 내현적 자기에  | -      |        |        |      |
| 2. 자존감      | -.62** | -      |        |      |
| 3. 자기개념 명료성 | -.74** | .63**  | -      |      |
| 4. 대인관계 문제  | .81**  | -.58** | -.75** | -    |
| 평균          | 2.86   | 3.43   | 3.29   | 2.48 |
| 표준편차        | .49    | .62    | .61    | .59  |

\*\*  $p < .01$ .

~ .18, 침도는 -.20 ~ .19이었다. 이는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 침도의 절대값이 7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변인들의 분포는 정상 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 $r = -.62, p < .01$ ), 자기개념 명료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 $r = -.74, p < .01$ ),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 $r = .81, p < .01$ )을 보였다. 자존감은 자기개념 명료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 $r = .63, p < .01$ ),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부적상관( $r = -.58, p < .01$ )을 보였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부적상관( $r = -.75, p < .01$ )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투입된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81 ~ 2.46으로 10보다 크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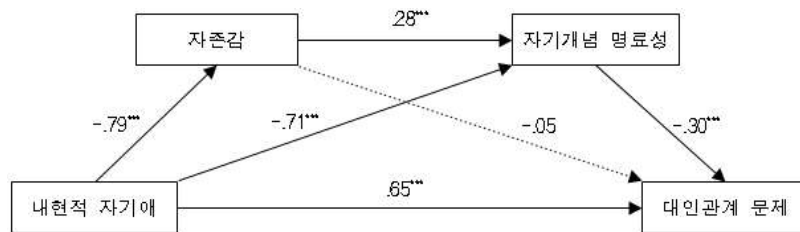
#### 주요 변인 간의 영향 관계 검증

연구문제 1의 확인을 위해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 대인관계 문제 간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Model 6)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 = 185.24, p < .001$ ), 이 모형의 설명력은 38.3%로 나타났다( $R^2 = .38$ ).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79, p < .001$ ).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이 자기개념 명료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 = 216.45, p < .001$ ), 이 모형의 설명력은 59.3%로 나타났다( $R^2 = .59$ ). 자기개념 명료성에 대해 내현적 자기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B = -.71, p < .001$ ), 자존감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 = .28, p < .001$ ). 즉, 내현적 자기에 높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 = 232.65, p < .001$ ), 이 모형

표 3. 연구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 경로                 | <i>B</i> | <i>SE</i> | $\beta$ | <i>t</i>  | <i>R</i> <sup>2</sup> | <i>F</i>  |
|--------------------|----------|-----------|---------|-----------|-----------------------|-----------|
| 내현적 자기애 → 자존감      | -.79     | .06       | -.62    | -13.61*** | .38                   | 185.24*** |
| 내현적 자기애 → 자기개념 명료성 | -.71     | .06       | -.57    | -12.02*** | .59                   | 216.45*** |
| 자존감 → 자기개념 명료성     | .28      | .05       | .28     | 5.90***   |                       |           |
| 내현적 자기애 → 대인관계 문제  | .65      | .06       | .54     | 11.00***  | .70                   | 232.65*** |
| 자존감 → 대인관계 문제      | -.05     | .04       | -.05    | -1.17     |                       |           |
| 자기개념 명료성 → 대인관계 문제 | -.30     | .05       | -.32    | -6.36***  |                       |           |

\*\*\*  $p < .001$ .

주. 제시된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임.

\*\*\*  $p < .001$ .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결과

의 설명력은 70.2%로 나타났다( $R^2 = .70$ ).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내현적 자기애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B = .65, p < .001$ ), 자기개념 명료성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B = -.30, p < .001$ ), 자존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B = -.05, p > .05$ ).

## 2.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간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매개효과(내현적 자기애 → 자존감 → 대인관계 문제, 내현적 자기

애 → 자기개념 명료성 → 대인관계 문제, 내현적 자기애 → 자존감 → 자기개념 명료성 → 대인관계 문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였다. SPSS PROCESS macro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크기를 비표준화 계수로 제시하고, 95% 신뢰수준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간에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N = 300$ )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한 5,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결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인

표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구분   | 경로                                    | Bootstrap 추정치 |           | 95% 신뢰구간 |      |
|------|---------------------------------------|---------------|-----------|----------|------|
|      |                                       | <i>B</i>      | <i>SE</i> | LLCI     | ULCI |
| 총효과  | 내현적 자기애 → 대인관계 문제                     | .97           | .04       | .89      | 1.05 |
|      | 내현적 자기애 → 대인관계 문제                     | .65           | .06       | .54      | .77  |
| 직접효과 | 총 간접효과                                | .04           | .03       | -.02     | .10  |
|      | 내현적 자기애 → 자존감 → 대인관계 문제               | -.01          | .01       | -.02     | .01  |
| 간접효과 | 내현적 자기애 → 자기개념 명료성 → 대인관계 문제          | .22           | .04       | .14      | .30  |
|      | 내현적 자기애 → 자존감 → 자기개념 명료성<br>→ 대인관계 문제 | .07           | .02       | .04      | .10  |

주. LLCI =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개별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총효과( $B = .97$ ,  $CI = .89 \sim 1.05$ )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투입되었을 때 총효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을 경유하지 않고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B = .65$ ,  $CI = .54 \sim .77$ ),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총간접효과( $B = .04$ ,  $CI = -.02 \sim .10$ )로 분해되었다. 총간접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간접효과 경로인 내현적 자기애가 자존감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 $B = -.01$ ,  $CI = -.02 \sim .01$ )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자존감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간접효과 경로

인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 $B = .22$ ,  $CI = .14 \sim .30$ )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증가할수록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지고, 감소된 자기개념 명료성으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B = .65$ ,  $p < .001$ ),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간에 자기개념 명료성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을 경유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내현적 자기애가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B = .07$ ,  $CI = .04 \sim .10$ )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감소된 자존감으로 인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지면서 대인관계 문제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문제에 내현적 자기애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이은혜, 2012; 최민경, 김종남, 2010; 홍서운, 2014)와 일치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순응적이고 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신윤정, 2009; 조영재, 이동훈,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을 높인다는 연구(손은경, 2014)와 맥락을 같이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무가치감, 과민함, 비판에 쉽게 상처받는 민감성, 부정 정서 등을 쉽게 느끼기 때문

에(Hendin & Cheek, 1997), 타인에게 지나치게 예민하고 대인관계의 문제 상황에서의 좌절을 견디지 못하여(박진숙, 2007), 직장에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존감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존감과 대인관계 문제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는 자존감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자존감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존감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연구(김소형, 2011; 이주현, 2017)와 불일치한다. 그러나 자존감 연구에 대한 대규모의 개관을 통해 학업적 성취, 직업적 성공, 관계의 질과 지속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결과를 신뢰롭게 예측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 연구(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존감이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연구(Conley, 1984)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직장인의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경우, 자존감의 변화만으로 대인관계 문제가 직접적으로 감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개념 명료성과 같은 다른 독립변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의 대인관계 문제는 자존감에 대한 개입보다 자기개념 명료성에 대한 상담 개입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개념 명료성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연구(장주혜, 2019)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한 연구(장재숙, 2002; 정민, 장안나, 2009)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에 덜 몰입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위협도 적게 느끼고(Campbell et al., 1996), 외부상황에서 주어지는 자극들을 조절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윤소아, 2004), 직장에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서 대인관계 문제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내현적 자기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각각 매개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내현적 자기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연구(이은혜, 2012), 내현적 자기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연구(노우빈, 홍혜영, 2015)와 불일치한

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존감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와 대인관계 문제 간에 자존감은 매개 역할을 할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매개 효과 분석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내현적 자기가 높은 직장인의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경우, 자기개념 명료성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자존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 자존감이 의미 있는 치료적 요인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가 증가할수록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지고, 감소된 자기개념 명료성으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에 매개효과가 나타난 연구(장주혜, 2019)와 일치하고, 내현적 자기와 사회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에 매개효과가 나타난 연구(손은경, 2014)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가 자기개념 명료성에 영향을 미친 연구(최정문, 2013), 자기개념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박지환, 2012; 정민, 장안나, 2009)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타인의 평가를 회피하여 올바른 자기개념을 형성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불명

확해진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최정문, 2013).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지면 외부 자극에 대해 매우 높은 의존적 태도를 보이게 되어(Campbell & Fehr, 1990), 대인관계 장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간에 내현적 자기애의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여 자기개념 명료성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개념 명료성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룰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감소된 자존감으로 인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지면서 대인관계 문제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자존감을 감소시키는 연구(김방글, 오수성, 2009; 이은혜, 2012; Akhtar & Thomson, 1982; Watson, Taylor, & Morris, 1987), 자존감이 자기개념 명료성을 증가시키는 연구(김아름, 2009; Baumeister, 1993; Danu et al., 2008),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키는 연구(장주혜, 2019)들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고(김방글, 오수성, 2009),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적, 정

서적 반응이 불일치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Danu et al., 2008).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지면 외부 자극에 대해 매우 높은 의존적 태도를 보이게 되어(Campbell & Fehr, 1990), 대인관계 장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순차적인 매개 과정은 내현적 자기애를 경험하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를 상담할 때,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자기개념의 명료화를 이끌어 내는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료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직장인을 상담하는 경우,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료성의 현재 상태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성장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발달사를 탐색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나타나는 양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어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상담의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의 분석을 통해 자존감이 자기개념 명료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만큼 자기개념 명료성 외에 고려할 변인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자존감이 직접적으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기보다 자존감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의 다른 매개 변인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내현적 자기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를 경험하는 내담자가 대인관계 문제를 해소할 때 자기개념 명료성의 변화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담적 치료 과정에서 해석이나 직면을 사용할 경우, 내현적 자기를 가진 직장인은 내면의 과대성이 직면되거나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절망감을 느껴 방어적 반응을 취할 수 있으므로(Hamilton & Hamilton, 2007)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자의 너무 빠른 직면이나 민감할 수 있는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현적 자기와 대인관계 문제 간에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로 대인관계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을 상담할 때,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경로를 고려한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취약하고 과장된 자기기대나 이미지를 급하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타당화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될 경우 내담자의 자존감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계속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아짐으로써 대인관계 문제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더 보호하기 위해 방어가 높아지고 오히려 상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 자신의 취약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이 아닌 자신의 내면 속으로 숨어버려 생활상에서의 부적응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내현적 자기를 가진 직장인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대학생(김미선, 주은지, 2020; 노우빈, 홍혜영, 2015; 조성휘, 가요한, 2020), 청소년(최지영, 이영순, 2014), 일반 성인(김우정, 2011)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내현적 자기를 가진 직장인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내현적 자기를 가진 직장인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을 함께 투입하여 자기개념 명료성이 자존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매개효과를 보였음을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개념 명료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자아상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이해와 일관성 있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상담 개입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와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변인 간의 순차적 과정을 모형에 설정하여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자기개념을 내용적 측면의 변인으로

자존감과 구조적 측면의 변인인 자기개념 명료성을 이용하여 다면적으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자기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저변의 기제를 보다 더 정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표집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반관리/사무직의 응답자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있는 직장인들의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10년 이상 종사자의 비율이 미만 종사자들에 비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지역, 직종, 고용 형태, 기업 규모, 경력 등을 세분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단일시점에 측정된 횡단적 자료이므로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자기개념 명료성, 대인관계 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논의하기 어렵다. 분명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설정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 작성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다. 자기 보고식 설문의 경우 연구 대상자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식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드러내려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등의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검사 외에도 심층면담이나 다른 진

단 검사를 함께 사용한다면 왜곡을 줄이고 개인의 경험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중첩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공통된 하위요인으로 자기중심성이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자신감 부족요인과 대인관계 문제의 비주장성이나 과순응성 역시 공통점이 많은 요인이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척도 선정에서 이와 같은 공통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권보연 (2000). 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 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 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16).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 주은지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

- 적 정서조절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1), 1021-1034.  
<http://dx.doi.org/10.22143/HSS21.11.1.75>
- 김방글, 오수성 (2009). 실패 경험이 외현적·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069-1081.  
<http://doi.org/10.15842/kjcp.2009.28.4.007>
- 김성용 (2018). 직장인의 대인관계와 직무 만족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과 위계 문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형 (2011). 직장인의 자아존중감 및 성인 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정 (2011). 기혼자들의 자기에 성향, 공감, 자존감 및 갈등 대처방식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균, 장석진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http://doi.org/10.15703/kjc.15.2.201404.791>
- 노우빈,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통합치료 학회*, 7(2), 81-102.
- 문혜정 (2004). 성인애착 및 자의식 유형에 따른 대인 관계문제 수준의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민 (2018).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의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24(2), 465-474.
- 박우람, 홍상황 (2021). 자기개념 명료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초등상담연구*, 20(1), 1-30.  
<http://doi.org/10.28972/kjec.2021.20.1.001>
- 박은희 (2014). 성인 애착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환 (2012).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학급 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숙 (2007). 내현적 자기에 성격 성향 청소년의 분노 표현 양식과 대인관계 문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나리 (2011). 내현적 자기가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 제시 동기와 자기 제시 기대 차이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09-826.
- 설미향, 이윤형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4(3), 1-17.
- 손은경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가미, 박희현 (2016). 직장인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3(3), 113-131.  
<http://doi.org/10.15284/kjhd.2016.23.3.113>
- 송보라, 이기학 (2009).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95-205.  
<http://doi.org/10.21193/kjspp.2009.23.1.012>
- 신보훈 (2020. 7. 2.). 직장인 스트레스 원인 1위 ‘인간관계’.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200702082039577>에서 2021년 3월 29일 인출
- 신승엽 (2019. 3. 20.). 직장인 81%. “선·후배 싫어 떠난다”.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05629>에서 2019년 11월 18일 인출
- 신윤정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취약성이 크리스찬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봉화 (2011).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윤소야 (2004). 문화 성향과 일관성 추구 경향, 자기개념 명료성 및 성격 특성 지각.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아름, 장현아 (2017).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2), 171-192.  
<http://doi.org/10.21509/KJYS.2017.12.24.12.171>
- 이연주, 김유나, 박형인 (2021). 동료무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진을 통한 매개효과에서 회복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4(1), 27-50.  
<http://doi.org/10.24230/kjiop.v34i1.27-50>
- 이은혜 (2012). 교사의 자기애적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 불안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 (2017).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화 경험 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2), 463-477.  
<http://doi.org/10.15842/kjcp.2007.26.2.011>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Paranoid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장재숙 (2002). 아동의 친구와의 대인관계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주혜 (2019).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료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민, 장안나 (2009).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서 정서 지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669-681.  
<http://doi.org/10.15703/kjc.10.2.200906.669>
- 조성휘, 가요한 (2020). 기독교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전위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4), 261-289.  
<http://doi.org/10.23909/KJCC.2020.11.31.4.261>
- 조영재, 이동훈 (2013).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845-866.
- 최민경, 김종남 (2010).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47-763.  
<http://doi.org/10.17315/kjhp.2010.15.4.011>
- 최정문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이영순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분노 표현 양식 및 공감 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1), 77-95.
-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애자의 자기 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4), 1135-1143.  
<http://doi.org/10.15842/kjcp.2010.29.4.012>
- 함경애, 이은혜, 박명숙, 천성문 (2013). 교사의 자기애적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615-3631.  
<http://doi.org/10.15703/kjc.14.6.201312.3615>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서윤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73-95.
- Akhtar, S., & Thomson, Jr,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http://doi.org/10.1176/AJP.139.1.12>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http://doi.org/10.1080/00223891.1990.967408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umeister, R. F. (1993). Understanding the inner nature of low self-esteem: Uncertain, fragile, protective, and conflicted.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201-218). New York: Plenum.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http://doi.org/10.1111/1529-1006.01431>
- Berglas, S., & Jones, E. E. (1978). Drug choice as a self-handicapping strategy in response to noncontingent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4), 405-417.  
<http://doi.org/10.1037/0022-3514.36.4.405>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http://doi.org/10.1037/0022-3514.59.3.538>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 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http://doi.org/10.1111/1467-6494.t01-1-00002>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 esteem and self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3), 473-505.  
<http://doi.org/10.1111/j.1467-6494.1991.tb00257.x>
- Campbell, J. D., & Fehr, B.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122-133.  
<http://doi.org/10.1037/0022-3514.58.1.122>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http://doi.org/10.1037/0022-3514.70.1.141>
- Conley, J. J. (1984). The hierarchy of consistency: A review and model of longitudinal findings on adult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elf-opin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11-25.  
[http://doi.org/10.1016/0191-8869\(84\)90133-8](http://doi.org/10.1016/0191-8869(84)90133-8)
- Cooper, C. L., & Marshall, J. (1978). Sources of managerial and white collar stress. In C. L. Cooper & R. Payne (Eds.), *Stress at work* (pp. 81-105).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Danu, A. S., Joanne, V. W., & Juliana, R. D. (2008). In search of clarity: Self-esteem and domains of confidence and confu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1), 1541-1555.  
<http://doi.org/10.1177/0146167208323102>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http://doi.org/10.1521/pedi.17.3.188.22146>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http://doi.org/10.1037/0022-3514.75.2.545>

- Felker, D. W., & Felker, E. H. (1987). *Adoption, beginning to end: A guide for Christian parents*. Baker Pub Group.
- Gurtman, M. B. (1995). Personality structur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 theoretically-guided tem analysis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Assessment*, 2(4), 343-361.  
<http://doi.org/10.1177/1073191195002004005>
- Hamilton, N. G., & Hamilton, M. G. (2007). 대 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1988).
- Hayes, A. 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http://doi.org/10.1006/jrpe.1997.2204>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Kreitner, R., & Kinicki, E. (2001), *Organization behavior*. Boston, MA: McGraw-Hill.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http://doi.org/10.1037/0022-0167.39.4.46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Roles*, 16, 335-350.  
<http://doi.org/10.1007/BF00289546>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http://doi.org/10.1037/0022-3514.61.4.590>
- Woolfolk, R. L., Novalany, J., Gara, M. A., Allen, L. A., & Polino, M.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108-1120.  
<http://doi.org/10.1037/0022-3514.68.6.1108>

1 차원고접수 : 2021. 04. 23.  
수정원고접수 : 2021. 05. 19.  
최종게재결정 : 2021. 06. 27.

##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Employee's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Jo, Seong Yi**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Kim, Tae S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The participants were 300 adult workers consisting of 150 women and 150 men. They were asked about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problems,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via online. SPSS and PROCESS Macro were used to analyze data and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indirect effect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among all variables including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problems,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were significant. Covert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explained interpersonal problems whereas self-esteem failed to explain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self-concept clar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was not revealed. Third, the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revealed. These results woul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ntervening interpersonal problems for employees with a high level of covert narcissis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problems, self-esteem, self-concept clarity*